

원도심 밤거리 밝아진다

익산시, 익산역 앞 중앙로 일대 '문화이리로' 사업 추진 보석·철도 상징조형물로 야간 이색관광명소 탄생 기대

익산역 주변 거리에 빛이 더해지면 서 침체된 원도심 일대가 야간 관광명소로 새롭게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경관 조명 설치를 통해 밝고 활기찬 도심 이미지를 조성하는 한편 관광 콘텐츠를 강화해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로 발돋움시킬 계획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익산역 앞 중앙로에 문화이리로(빛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익산역에서 국민은행 사거리까지 총 300여 미터 구간에 다양한 경관 조형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 대표 산업인 보석과 철도역사 도시를 표현하기 위해 유라시아 철도 시대를 기원하는 보석기차 조형물이 설치되고 인도에는 형형색색의 기차 미니아트를 설치해 철도교통 중심인 익산의 변화를 보여줄 계획이다.

기관차 뒷면 공간에 담겨질 보석 조형물은 보석의 도시 익산을 상징하며 보석을 싣고 힘차게 하늘로 올라가는 모양의 기차 조형물을 통해 지역의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의지를 표현했다.

특히 보석기차 조형물의 기관차 앞 부분에 익산역을 비추는 레이저 빛을

설치해 역 광장을 원도심을 하나로 연결하는 만남과 소통의 장소로 탄생시킬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가로등과 버스 정류장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해 익산역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의 새로운 야간 명소로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부터 공사에 착공해 내년 6월 완공 예정이지만 연말과 새해를 맞아 어두운 도시 분위기를 밝고 희망 차게 전환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까

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도심을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 채울 계획이다. 밝아진 도심 분위기와 인도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색적인 불거리로 관광산업과 연계된 상가 활성화를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다채롭고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원도심의 색다른 매력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시민들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젊은 도심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역에서 국민은행 사거리까지 총 300여 미터 구간에 다양한 경관 조형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원광대, 장청강 주광주중국총영사, 교류협력 협의

중국 철학 관련 도서 기증도

원광대학교(총장 박병수)는 지난 9일 대학을 방문한 장청강 주광주중국총영사 일행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 교류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학을 방문한 장청강 총영사 일행은 허종규 원광학원 이사장과 박맹수 총장을 만나 환담을 하고 법인 대 대화의 대 중국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중국 철학 및 문화 관련 도서를 기증하기도 했다.

허종규 이사장은 "한·중 양국의 관계가 더욱 진전되고, 교류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장청강 총영사 일행을 맞이했다.

이어 국제교류처 주관으로 공자학원과 한중관계연구원을 찾은 장청강 총영사는 관계자들과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한·중 교류 및 교육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청강 총영사는 "원광대에서 유학 중인 380여 명의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린다"며, "원광대 방문을 계기로 중·한 양국이 더욱 돈독한 관계를 구축해 건설한 중·한 공동체가 형성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박맹수 총장은 "한·중 양국의 문화와 역사적 기반을 활용하여 더 나은 동아시아 건설 구축에 힘을 쏟을 수 있다"며 "원광대가 쌓아온 노력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한·중 관계 발전과 양국 우호교류증진에 앞장설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8월 부임한 장청강 총영사는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 처장, 총칭시, 웬촨시 부시장 중국주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 참사관 중국인민외교학회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부 주임 등을 역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어촌뉴딜300' 서래포구·두리도 2곳 선정

군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어촌뉴딜 300사업의 2021년 신규사업 대상으로 서래포구와 두리도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시는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대비해 어촌계 개방성 확대 및 어촌별 지역자원 발굴 선행사업과의 연계성 리 개발과 다수의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중당 신영대 국회의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2019년 이후 신규 공모사업 준비를 통해 올해에도 2개 지구가 선정됨에 따라 총 7개의 어항에 총 71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시 관내 어항 및 어촌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에 선정된 사업대상지인 서래포구는 항구도시 군산의 옛 흔적이 남아

있는 지역으로 이번사업을 통해 어항 기반시설인 호안장비, 물양장 및 어구 작업장을 조성하고 주민소득 및 편의 시설로 어촌박물관, 폐선전시장, 마을 어시장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도서 중 가장 작은 섬마을인 두리도는 어항 및 마을정비가 마뒀던 지역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 정주여건 및 어업활동 지원을 위해 어항 개발인 방파제, 다목적 공동작업장을 조성하고 주민 복지시설로 행복 나눔센터, 산책길, 마을경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88억원(국비 70%, 도비 9%, 시비21%)을 투자하여 낙후된 어항시설의 현대화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어촌마을을 조성하여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한형봉 기자

익산시 내부청렴 '안정' ... 이제 외부청렴 잡는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익산시 내부청렴도가 전년 대비 상승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부청렴도 영향으로 종합적으로 지난해와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면서 이제는 외부청렴도 향상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는 지난 9일 국민권익위 평가 결과 내부청렴도는 2등급(지난해 3등급), 외부청렴도는 5등급(지난해 4등급)으로 종합청렴도는 4등급(전년과 동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내부청렴도의 경우 지속적으로

진 직인 청렴교육,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 여러 가지 정책을 강화한 결과 올해 최초로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한 2등급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었다.

외부청렴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그쳤다.

시는 외부청렴도 가운데 시민들이 느끼는 공무원들의 청렴성에 대한 인식(특혜제공, 부정청탁, 업무처리 투명성, 책임성 등)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개선됐지만 공사 부패 분야 응답이 미흡한 수준으로 나와 관련 분야 개선책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의회, 추경예산 1조 5799억원 확정

2000만원 삭감, 12건 안건 의결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0년 결산추경 예산을 1조 5,799억 9,400만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10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추경예산 확정 및 12건의 부의안건 중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3건을 의결했다.

이번 제5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제4회 추경인 1조 5,676억 5,300만원에 대비하여 129억 6,100만원 증액된 1조 5,805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0만원이 삭감된 1조 5,799억 9,4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삭감된 예산은 역전종합시장 주차장 부지(철도) 임대료 5,834만원 중 2,000만원이다.

지해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결산추경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

인 만큼 시민의 복리증진과 긴급하고 필수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꼼꼼한 예산심의를 이루어졌다"며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10일 4차 본회에서 5분발언에 나선 김중신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보건의료종사자, 돌봄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버스기사, 등 필수노동자들은 감염위험을 안고 최전선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의료진과 택배회사, 물류센터, 콜센터 노동자들이 업무를 지속하다 집단감염을 겪고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지만 근로환경과 처우 등은 개선되지 않고 열악한 가운데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동원도 지난 10월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처우개선 배달기사의 교통사고 예방, 환경미화원의 표준계약서 작성, 보험적용 범위 확대, 특수고용종사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의 계기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서구 사회에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종 지원정책과 법률이 제정되고 있다며, 군산시도 필수노동자의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정책과 노동환경개선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1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 본예산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군산=한형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자원봉사자대회 온라인으로 생중계

올 한 해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10일 제15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2020 군산시자원봉사자대회'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하여 무관중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예정이었던 수상자, 자원봉사자 및 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은 유튜브 라이브 영상으로 함께했다.

이날 5,000시간 이상 꾸준히 봉사활동에 헌신한 봉사자로 명예의 전당에 김대선씨가 이름을 올렸으며, 1365포털 시스템상 최다실적 수상자로 봉사상 김영림, 나눔상 윤희봉, 배려상 박효숙, 배품상 박희순, 행복상 이옥순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군산시장 표창 단체부문에 꿈꾸자가족봉사단, 늘혜림가족봉사단, 대한적십자봉사단군산지구협의회, (사)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전북지부군산지회가 수상하였으며, 개인부문에는 김복희씨 외 7명에게 표창이 수여되었다. /군산=한형봉 기자

군산 서해장학회

29년째 장학사업 귀감

서해장학회가 해마다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시는 서해장학회(이사장 송재휘)가 10일 학교 내외적으로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직원들의 자녀 25명에게 2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송재휘 이사장은 "기특이나 지역경제가 좋지 않은 데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 등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부모님의 성실함을 이어 받아 사회의 모범적인 인재가 되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해장학회는 지난 1992년부터 매년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 금년까지 1,023명에게 총 8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급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